광주 평균 전세금 4470만원

5년새 31% 올라 … 전남은 3901만원 38%나 뛰어

통계청 '2010인구주택총조사' 발표

PC·인터넷 회선 보급률 전국 최저

광주와 전남지역의 평균 전세금이 5년 전보다 각각 31%, 38%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회선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보유율도 전국 최하위였다.

통계청은 27일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의 주거실태·정보통신기기·교통수단 부문을 내놓았다.

발표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지난 2010년 총 전세 가구는 7만7000가구인 가운데 평균 전세금은 지난 2005년 3411만원에서 지난해 4470만원으로 1059만원(31%) 올랐다. 전남의 전세 가구는 7만8000가구이며 같은 기간 2811만원에서 3901만원으로 1090만원(38%) 뛰었다. 하지만 광주의 평균 전세금은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4000만원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고, 전남의 평균 전세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000만원대로 역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했다.

평균 전세금 규모별에서도 30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 41.1%, 전남 40.4%로, 충북(44.5%), 경북(42.8%)에 이어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전국의 가구별 평균 거주기간은 7.9년으로 2005년의 7.7년보다 0.2년 증가한 가운데 광주는 7.1년으로 평균보다 적었다. 반면, 전남은 13.8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또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은 25년 이상 장기간 거주가구 비율도 30.5%를 기록, 경북(21.5%), 충남(20.9%) 등을 크게 제쳤다.

전국의 개인용 컴퓨터 보유 가구는 73.9%, 인터넷 회선 보유 가구는 71.5%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남은 개인용 컴퓨터(53.7%)와 인터넷 회선(51.5%) 보유비율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아 정보화 소외지역으로 꼽혔다.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하나라도 보유한 가구는 전국 전체 가구의 69.6%인 1207만4000가구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비율은 63.6%로, 차종별로는 경차 20.6%, 경차 외 승용차 40.7%, 승합차 2.5%, 화물·특수차 7.2%였다.

전국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모든 자동차의 보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74.5%)이었으며 서울이 55.0%로 가장 낮았다.

광주는 전체 가구수 51만6000가구 중 11만9000가구(23.1%)가 경차를 포함한 승용차를 소유해 대전(24.4%), 제주(23.6%)에 이어 승용차 보유 가구가 전국 3위 수준이었다. 전남은 68만2000가구 중 12만3000가구(18.0%)가 경차 포함 승용차를 보유, 부산(17.0%)에 이어 가장 적은 편에 속했으며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보유율은 31.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은 리더스클럽 43주년 행사

사회복지단모금회에 성금 전달도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7일 우수 기업고객 CEO모임인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회원사 대표 260명을 초청해 '광주은행 창립 제43주년 기념 광은리더스클럽 은행장배 체육행사 간담회'를 성료했다.〈사진〉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김홍균 리더스클럽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리더스클럽 회원사 대표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특별히 리더스클럽 회원들의 성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은 회비로 모아진 성금 총1200만원을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에 전달했다.

한편 광은리더스클럽은 그동안 광주은행이 선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인 KJB사랑샘터에도 매년 성금을 전달하고 있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을 전파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분기 성장률 3.4%

2년만에 최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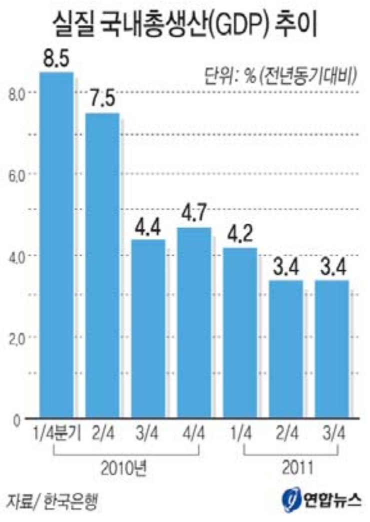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3%에 머무르며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3%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은이 내놓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실질 GDP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지난 2009년 3분기 1.0%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지속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8.5%에서 2분기 7.5%, 3분기 4.4%, 4분기 4.7%, 올해 1분기 4.2%, 2분기 3.4%, 3분기 3.4% 등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평균 3.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4분기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연 4.3% 달성을 어렵게 됐다.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0.7% 상승해 지난해 4분기 0.5%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출 측면에서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2%로 전분기의 3.0%보다 둔화됐다.

건설투자는 4.2% 감소하면서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다만 감소폭은 전분기 -6.8%보다 줄었다.

설비투자는 1.4%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폭이 전분기의 7.5%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전분기 9.6%에서 9.4%로, 수입은 7.9%에서 6.4%로 둔화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재배업이 부진한데다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줄어 전년 동기보다 2.6% 줄었다.

/연합뉴스

완도산 마른 해삼·전복 美 수출길 열렸다

aT 광주·전남지사…연간 100만달러 이상 기대

완도에서 생산된 마른 해삼과 전복이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는 "완도 ㈜글로리아수산이 2만달러 어치(20kg)의 건해삼·건전복을 미주시장에 샘플수출하는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는 마른 해삼과 전복은 kg당 1000달러가 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이번 수출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뉴욕 aT센터가 완도산 건해삼과 건전복 제품을 들고 뉴욕의 주요 바이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마케팅을 벌인 성과다. 28일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 에스터(Astor)센터에서 주요 바이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완도 ㈜글로리아수산의 건해삼·건전복 미주시장 출시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른 해삼과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미국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샘플 수출 2만달러를 시작으로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T 광주전남지사는 이번 수출로 건해삼·건전복이 미국시장에서 김에 이어 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경 지사장은 "최근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농식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일본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전남산 마른 해삼과 전복의 미국 수출이 캐나다와 남미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20~30대 10명 중 8명 "전통시장 문화자원 가치"

20~30대 젊은 소비계층 10명 가운데 8명은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가치있다고 답변했다.

27일 시장경영진흥원이 전문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내놓은 '2011년 전통시장 2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50대를 제외한 20대와 30대, 40대 모든 연령층에서 인식률이 증가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20대 86%, 30대 72%, 40대 87%로 지난 3월 말 실시한 1차조사에 비해 각각 20%, 2%, 10%의 인지도 상승했다.

특히 조사 결과 중 잠재소비계층인 20~30대의 평가가 1차 조사 보다 16% 이상 오른 이유에 대해 20~30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중심 홍보 활동이 주효했던 것으로 시경원측은 분석했다.

시경원은 올 초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고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 젊은층에게 전통시장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들을 미래 고객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연합뉴스

아침 '최저기온 10℃' 백화점 매출 분기점

기온 떨어질수록 고객·매출 '껑충'

날씨가 추우면 백화점에 발길이 끊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고객들은 옷깃을 여미고 더 두꺼운 옷을 사러 쇼핑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아침 최저기온 10℃를 기준으로 매출 양상이 바뀌고, 여성 고객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롯데백화점이 10월 기상청 기온 자료와 서울시내 9개 점포 매출을 분석한 결과, 평균 최저기온이 9.8℃였던 첫 주(1~7일)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2.4% 증가해 평균 최저기온 11.6℃였던 둘째 주(8~14일)의 매출 증가율 3.4%를 웃돌았다.

3~4째주인 15~25일 평균 최저기온이 9℃로 떨어지자 매출 증가율은 다시 11.9%로 뛰어올랐다.

이런 차이는 한파가 찾아오면 두껍고 값비싼 겨울 외투 판매가 늘어나 생기는 것으로, 최저기온이 떨어질 때 객단가(1인당 쓰는 금액)가 높아지는 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침 날씨가 추웠던 1~7일과 15~25일 객단가는 작년 동기보다 각각 10.5%, 10.6% 높았다.

이 백화점 여성팀 신남선 선임상품기획자(CMD)는 "가을시즌 여성복 매출에서 외투 등 아우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인데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50% 정도로 증가했다"며 "아우터 단가가 안에 받쳐입는 이너보다 3~4배 높아 전체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카드론 사기 극성 금감원 본인확인 절차 강화 주문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불쑥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고의로 정보를 노출한 건지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속은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유효성 코드)를 알려줬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카드론으로 1440만원이 대출됐다.

다시 걸려온 전화는 "범죄자금이 입금된 것이니 공범으로 몰리고 싶지 않으면 돈을 보내라"고 윽박질렀고, A씨는 2개 계좌로 1200만원을 보냈다.

A씨처럼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당해 카드론을 받고 돈을 뜯긴 사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신고된 것만 182건. 피해금액은 63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론의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해 이 같은 카드론 사기가 극성을 부리게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연합뉴스